

인천

제19대 총선과 인천

이준한 |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제19대 총선과 인천의 의의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이 가지는 의의는 크게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첫째는 인천에서 다시 이루어진 야권의 후보단일화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에 야권 후보단일화가 성사되었지만, 후보단일화의 명분과 필요성에 비하여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그나마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 곳이 부산, 울산, 그리고 인천이었는데 특히 인천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야권 후보단일화의 성과가 축적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천에서 2012년 총선에도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은 향후 각종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단일화가 인천에서는 일종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인천의 선거결과가 국회의원선거의 전체 결과에 있어서 풍향계가 된다는 것이다. 제16대 총선에서는 11개 의석 가운데 민주당 6개와 한나라당 5개로 갈렸고, 제17대 총선에서 12개 의석 가운데 열린우리당 9개와 한나라당 3개로 나뉘었으며, 제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2개와 한나라당 10개로 나뉘었다. 이러한 인천의

선거결과와 유사하게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133석과 민주당 115석으로 나뉘었고, 제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제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각각 과반수를 차지했다. 즉 인천에서 한 정당 쪽으로 쏠린 경우에는 과반수 의석의 장악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말이다.

셋째, 이번 선거는 인천 차원에서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한 책임론과 송영길 현 시장의 평가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었다. 2012년 1월 1일자 조선일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수도권 가운데 서울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에 비하여 더 높았으나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와 송영길 시장의 인천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인천지역의 정당별 지지율에 있어서 역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현·전 시장 사이의 전선이 약화와 강화를 거듭하기도 했다.

2. 공천과정과 결과

인천의 총선후보 공천은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야권의 후보단일화 경선을 거치면서 확정되었다. 먼저 인천에서는 2월 24일 민주통합당의 제2차 공천자 명단을 통하여 김교홍(서구강화갑), 문병호(부평갑), 신동근(서구강화을), 신학용(계양갑), 홍영표(부평을)를 후보로 발표했다. 2월 29일 제3차 공천자 명단에서는 안귀옥(남을)이 포함되었고 남동갑에서는 안영근과 박남춘 사이의 경선이 결정되었다. 3월 6일 제5차 공천자 명단에는 이철기(연수)와 한광원(중동용진)이 포함되었고 3월 9일 제7차 공천명단을 통하여 계양을에서 김희갑과 최원식 사이의 경선이 예고되었다. 3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동을에 윤관석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고 3월 19일에는 야권단일후보로 김성진(남갑)이 발표되었다.

이후에 벌어진 인천의 경선과정에서는 전직의원보다 신인이 선출되는 결과가 이어졌다. 즉 남동갑의 경선에서는 3월 8일과 9일 사이에 실시된 유권자 여론조사(1,400명)와 모바일 투표(1,680명), 그리고 3월 10일 실시된 현장투표 신청자 1,757

명 중 421명(24.0%)이 투표에 참여하여 안영근이 135표(32.1%)를 얻고 박남춘이 286표(67.9%)를 확보했다. 최종적으로 정치신인 박남춘(62.7%)이 전직의원 안영근(37.3%)을 이긴 것이다(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20311000176).

또한 정치신인 사이의 계양을 경선에서는 3월 12일과 13일 사이에 모바일투표(2,952명), 14일에 현장투표(2,990명)로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3,410명(57.4%)이 참여했고 최원식은 모바일투표에서 55.7%, 현장투표에서 49.2%를 획득했고 김희갑은 모바일투표에서 44.3%, 현장투표에서 50.5%를 얻었다. 최종적으로 최원식이 53.3%로 승리했다(부평신문 3월 15일).

3월 10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합의에 따라 인천에서는 경선을 실시하는 지역이 다섯 곳으로 정해졌다. 즉 연수(이철기 대 이혁재), 서강화갑(김교홍 대 한승일), 중동용진(한광원 대 소성호), 남동갑(박남춘 대 신창현), 계양을(미정 대 박인숙)이었다. 경선은 3월 17일과 18일 사이 야권단일후보의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계양을의 최원식은 박인숙과 다시 한번 경선을 치렀고 남동갑의 박남춘도 신창현과 경선을 더했다. 이 과정에서는 모두 민주통합당 후보가 이겼다. 다만 경선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중앙당과 시당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연수구에서는 단일후보 경선과 야권연대의 파기까지 위협을 받았으나 이정희 대표의 사퇴를 계기로 일단락이 지어졌다.

3. 인천의 총선과정

인천에서는 2명의 현역의원(신학용, 홍영표), 3명의 전직의원(김교홍, 문병호, 한광원), 6명의 정치신인(박남춘, 신동근, 안귀옥, 윤관석, 이철기, 최원식), 그리고 야권 단일후보(김성진)가 출마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새누리당은 현역의원 3명의 물갈이(조진형, 이경재, 이윤성), 6명의 현역의원(박상은, 윤상현, 이상권, 이학재, 홍일표, 황우여), 1명의 재도전자 김연광, 4명의 신인(안덕수, 윤태진, 정유섭, 조갑

진), 낙하산 공천 1명(김석진)의 진용을 짚다. 여기에서 새누리당 이윤성은 공천결과에 불복하고 남동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양당이 선거전의 막을 올릴 때 민주통합당에서는 우세지역으로 남동갑(박남춘), 남동을(윤관석), 부평갑(문병호), 부평을(홍영표), 계양갑(신학용), 계양을(최원식) 6곳을 뽑았고, 경합은 중동용진(한광원), 남을(안귀옥), 서구강화갑(김교홍) 3곳, 열세는 남갑(김성진), 연수(이철기), 서구강화을(신동근) 3곳으로 보았다. 이에 비하여 새누리당은 우세가 중동용진(박상은), 남갑(홍일표), 남을(윤상현), 연수(황우여) 4곳, 경합은 계양을(이상권), 서구강화갑(이학재), 서구강화을(안덕수) 3곳으로 뽑았다. 여기에 남동갑의 무소속 이윤성과 남동을의 국민생각 이원복이 표를 분산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4. 인천의 총선 결과

인천의 총선결과는 애초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지도상 동남쪽을 제패했고 새누리당은 서북쪽을 석권해 인천을 반분했다. 즉 부평갑에서는 민주통합당 문병호가 새누리당 정유섭을 이겨 국회에 재입성했고 부평을에서 민주통합당 홍영표가 새누리당 김연광을 이겼다. 계양갑에서 민주통합당 신학용이 새누리당 조갑진을 이겼고 계양을에서는 민주통합당 최원식이 새누리당 이상권을 이겼다. 남동갑에서는 민주통합당 박남춘이 3선 구청장 출신인 새누리당 윤태진과 4선 의원인 무소속 이윤성을 이겼고 남동을에서 민주통합당 윤관석이 새누리당 김석진과 국민생각 이원복을 이겼다.

이에 비해서 중동용진에서는 새누리당 박상은이 민주통합당 한광원을 제18대 총선에 이어 이겼다. 남구갑에서도 새누리당 홍일표가 통합진보당 김성진을 이겨 재선에 성공했다. 남구을은 새누리당 윤상현이 민주통합당 안귀옥을 이겼다. 연수구에서는 새누리당 황우여가 민주통합당 이철기를 이기고 5선에 성공했다. 서구강

화갑은 새누리당 이학재가 민주통합당 김교홍을 제쳤고, 서구강화읍에서 새누리당 안덕수가 민주통합당 신동근을 이겼다.

5. 제19대 총선과 인천의 과제

인천의 제19대 총선에 있어서 한계와 문제점을 평가한다면 이 짧은 글의 서두에서 제시했던 의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첫째로 야권연대가 인천의 선거결과에 미친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에 후보단일화를 시도한 다섯 곳에서 세 곳(연수, 서구강화갑, 중동옹진)에서는 단일후보가 패배했고, 두 곳(남동갑, 계양을)에서는 단일후보가 승리했다. 단일후보가 패배했던 연수에서는 새누리당(44.75%)보다 민주통합당(35.31%)과 통합진보당(8.94%)의 정당득표를 합계가 낮았으나, 원체 서강화갑과 중동옹진에서는 그 반대로 계산된다. 다시 말해 이 세 지역에서는 아무리 야권연대를 했어도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계양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정당 지지만으로도 새누리당보다 더 높았다. 전체적으로 인천에서 민주통합당의 정당득표는 37.68%이었고 통합진보당의 정당득표가 9.71%이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야권연대가 새누리당(42.90%)에 승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구 수준으로 보면 몇몇 지역구에서 후보나 공약이라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했던 것이다.

둘째는 이번에도 인천의 선거결과가 제19대 총선 전체 결과의 방향계가 되었다. 물론 이번 제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인천지역에서 12석 가운데 반씩 서로 나누었다. 이에 비하여 전체적으로는 152석의 새누리당과 127석의 민주통합당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다섯 차례의 선거에서 인천의 남갑, 남을, 중동옹진 3곳의 승자가 전국 수준에서 다수당이 된 패턴에서 변화가 없었다(한겨레 2012년 4월 13일). 즉 이번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인천의 남갑, 남을, 중동옹진을 석권했는데 과거에 이 세 선거구를 모두 이긴 정당이 다수

당이 되었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과반수로 이긴 선거결과를 보였다
것이다.

셋째, 이번 인천의 선거에서 주목할 사실은 새누리당 이학재와 윤상현의 재선이
다. 이들은 차천타천으로 송영길 시장의 대항마로 장차 시장선거에 출마할 가능성
이 있는 후보들로서 선수를 차근히 쌓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이학
재가 당선된 서구강화갑에서는 안상수 전 시장의 개발정책과 송영길 현 시장의
수정정책 사이에 팽팽한 대결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예상보다 큰 격차
로 민주통합당의 김교홍이 패배함으로써 복합적인 정치적 함의를 낳은 곳이다.
서구강화갑의 이학재는 새누리당 박근혜의 비서실장이라는 점까지 겹쳐 앞으로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은 과제는 무엇보다도 2010년 이후 일종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인천의 야권연대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비록 이번 총선에서는 야권연
대가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크지 않았다. 향후에는 야권연대의 효과를 극대화시
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신선한 후보를 발굴하고 유권자의 피부에 밀접한 공약을 개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천의 낮은 투표율에 대한 정당 차원의 대책도 시급하다고 보인다.
인천의 투표율은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또 다시 최저 기록을 나타냈다. 이번 제19
대 총선에서 인천은 51.4%의 투표율로 제18대 총선 투표율(45.2%)보다는 높아졌
지만 전국 평균(54.3%)을 여전히 밑돌았다. 인천의 투표율이 상승할수록 민주통합
당의 잠재적 지지가 더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인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민주당이 유권자의 이해를 더 대변하고 유권자의 마음을 더 움직이는 과제
가 남아 있다. ∞